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와 금리인하 미논의 이란과는 협상 진행

- 미국,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유로화 강세 속 ECB의 1월 통화정책회의도 관심
- 중국 1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모두 전월비 하락. 수요 부진 등에 기인
- OPEC+, 3월에도 기존의 산유량 유지. 이후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1월 FOMC 결과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6%],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반도체 관련주 강세, 일부 기업의 양호한 실적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인도와의 무역협정, 양호한 4/4분기 GDP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중반까지 '디베이스먼트 거래'로 하락했고, 이후 낙폭 축소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5년물 압찰 부진 등으로 상승
독일은 역내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 등으로 6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32% 하락, 한국 CDS 상승

		1/30일	1/23일	전주말대비			1/30일	1/2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939.0	6,915.6	+0.34%	국채 금리 10y	미국	4.24%	4.23%	+1bp
	유럽	611.00	608.34	+0.44%		독일	2.84%	2.91%	-6bp
	중국	4,117.9	4,136.2	-0.44%		영국	4.52%	4.51%	+1bp
	일본	53,323	53,847	-0.97%	CDS 5y	한국	22bp	21bp	+1bp
	한국	5,224.4	4,990.1	+4.70%		중국	44bp	42bp	+2bp
	달러지수	96.99	97.60	-0.62%	위험 지표	EMBI+	266bp	259bp	+7bp
환율	유로화	1.1851	1.1828	+0.19%		VIX	17.44	16.09	+8.39%
	엔화	154.78	155.70	+0.59%		WTI유	65.21	61.07	+6.78%
	위안화	6.9569	6.9632	+0.09%	원자재	구리	592.4	594.8	-0.40%
	원화	1,443.5	1,462.5	+1.32%		금	4,894.2	4,987.5	-1.8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와 금리인하 미논의. 이란과는 협상 진행

-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워시 전 연준 이사와 금리인하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고, 금리인하를 약속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 다만 그 사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워시 전 이사 또한 분명히 금리인하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상원 인준을 앞두고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
- CME의 FedWatch는 연내 2회의 금리인하(6월과 9월, 각 0.25%p)를 예상하고 있어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기 전과 거의 동일한 상황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발언. 이란과의 대화를 계속 유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첨언. 동시에 중동에 파견한 항공모함 등의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며 군사적 압박도 강조. 구체적 군사 계획은 동맹국에도 알려줄 수 없다고 부연
- 아울러 덴마크와의 그린란드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뤄질 것 같다고 언급.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한편,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이 성사되면 이에 대해 매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유로화 강세 속 ECB 1월 통화정책회의도 관심

- 2/6일 작년 12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 시장에서는 6.5만건의 비농업 신규 고용이 이루어져 전월(5.0만명) 대비 증가세 강화되고,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한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이는 1월 FOMC에서의 고용 관련 평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금리인하 기대를 다소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소지
- 반면, 이번 보고서에는 연간 고용 증가율 수정치도 발표되는데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 속도가 크게 하향 조정 될 것으로 추정. 이를 감안한다면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
- 한편, 2/5일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개최. 전문가들은 금리동결을 예상. 다만 최근 유로화 강세, 인플레이션 둔화 등이 부각되고 있어 일부 위원들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금리인하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상원, 예산안 가결. 다만 일정 문제로 '일시적 예산 공백' 상황 발생

- 상원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30일) 전에 예산안을 승인.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 임시 예산안을 가결. 다만 이번 예산안은 하원에서의 승인도 필요해 최소 3일 동안 '일시적 예산 공백'이 불가피. 하원에서 신속 처리 절차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도 2/2일이나 본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

■ BofA, 글로벌 증시 과매수 상태. 과거 기준 적용 시 매도 신호 발생

- 마이클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글로벌 증시가 과매수 상태라고 지적. 특히 현재 MSCI 주가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가운데 주가가 5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비중이 89%인데, 역사적으로 해당 비중이 88%를 넘어서면 매도 신호로 작동했다고 발언

■ 이란, 필요하면 강력하게 반격. 일부 군 관계자는 對이스라엘 공격을 경고

-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야심을 품고 해를 끼치려는 자에게는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 이는 미국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 이란군의 수장인 하타미 장군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

■ 중국 1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모두 전월비 하락. 수요 부진 등이 반영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 제조업 PMI는 49.3으로 전월(50.1) 및 예상치(50.0) 하회. 비제조업 PMI 역시 49.4를 기록, 전월(50.2) 및 예상치(50.3) 대비 낮은 수준. 이번 결과는 수요 부진에 따른 저조한 신규 수주 등에 기인하며, 특히 비제조업 PMI는 '22년 12월 이후 최저. 당국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대규모의 경기부양책 마련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Nomura)

■ OPEC+, 3월에도 기존의 산유량 유지. 이후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

- 각국의 대표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 3월에도 기존의 산유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확인.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ISM 제조업 PMI 및 S&P 글로벌 제조업 PMI
- 유로존 1월 HCOB 제조업 PMI, 중국 1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케빈 워시, 연준 개혁과 AI 시대 통화정책 재정립의 책임자 - WSJ

(Kevin Warsh is the right choice for the Fed)

- 케빈 워시는 연준이 본래 역할을 넘어 지나치게 비대화됐다고 비판해 온 만큼, 개혁의 책임자로 평가. `11년 연준의 양적완화 상시화에 대한 비판은 옳았는데, 첫 번째 양적완화 때는 성장 부진, 두 번째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
- 대통령이 매파 성향의 워시를 지명했는데,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 매파로서 시장의 신뢰를 받으면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가 수월. 워시는 제도적 표류에 빠진 연준을 본질적 책무로 되돌리고, 수조 달러로 확대된 대차대조표의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또한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 국면을 맞아,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

■ 미국 트럼프의 금리·세금정책 강조, '마러라고 협정'의 중요성 퇴색 - WSJ

(Why There's No Grand 'Mar-a-Lago Accord' for Global Currencies)

-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달러화 과대평가 해소 및 무역적자 개선 등을 위한 '마러라고 협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트럼프는 ▲금리 ▲세금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환율 협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후퇴
- 만일, 글로벌 환율 합의가 트럼프의 중요 사안이었다면 최근 美日 외환시장 공조 필요성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나 실상은 이와 다른 모습. 다만, 일본 국채시장 혼란이 자국에도 영향을 미치면 미국 당국은 적극 개입할 가능성.

■ ECB의 금리인하 논의, 유로화 강세·물가 하방 압력 증가 등으로 격화 가능성 - 블룸버그

(Euro Rally Is Latest Risk to ECB's Inflation Outlook)

- ECB는 작년 6월 이후 금리를 유지했고, 이번 주 예정된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동결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유로존은 미국 정치권의 연준 공격, 그린란드 관련 관세 위협, 목표치(2%)를 소폭 하회하는 인플레이션, 유로화 강세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
- 특히, 트럼프의 달러화 약세 용인 등으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일시적으로 5년 만에 최고 기록. 또한 유로화 강세 등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에도 하방 압력이 높아질 소지. 이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서 유로화 가치가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ECB 내 금리인하 논쟁은 심화될 전망

■ **신흥국의 주식·채권·통화 강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지속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make roaring start to 2026 as dollar slides)

- 달러화 가치가 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외 시장으로의 투자 다각화 움직임을 강화. 이에, MSCI 신흥시장 주식 벤치마크 지수는 지난해 31% 상승에 이어 올해 1월 약 11% 상승. 아울러, 같은 달 브라질 헤알화, 멕시코 페소화, 남아공 랜드화 등 신흥국 통화 가치도 달러화 대비 5~6% 상승
- 신흥국 채권지수 역시 연초 이후 약 2% 이상 상승하며 선진국(1%) 대비 우수한 성과 기록 중. 또한 지난주 신흥국 채권 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올해 추가 상승 기대가 확대. 달러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 달러화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모색 확산, 엔캐리 청산 우려 불구 신흥국에 자금 유입, 달러화 신뢰도 하락 등은 금년 신흥국 금융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전망

■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인하 양립 시각, 의구심 초래 - Financial Times**

(Kevin Warsh's desire to shrink Fed's balance sheet sets up clash with Trump, say investors)

■ **AI 고용 대란 우려, 근거가 부족. 오히려 일자리 증가 유도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Don't fear the AI 'jobpocalypse')

■ **유럽의 희토류 확보, 美中 무역전쟁 등으로 관련 입지 축소될 우려 - The Economist**

(Europe risks a rare-earths crunch between China and America)

■ **국제 은 가격 변동성, 수요 감소 징후 및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확대될 소지 - WSJ**

(The Silver Market Is Messed Up. These Buyers Are Feeling the Pain.)

■ **캐나다 카니 총리의 중견국 연대 구상, 자유주의 회복 해법으로는 한계 - 블룸버그**

(Carney's Davos speech has a big hole i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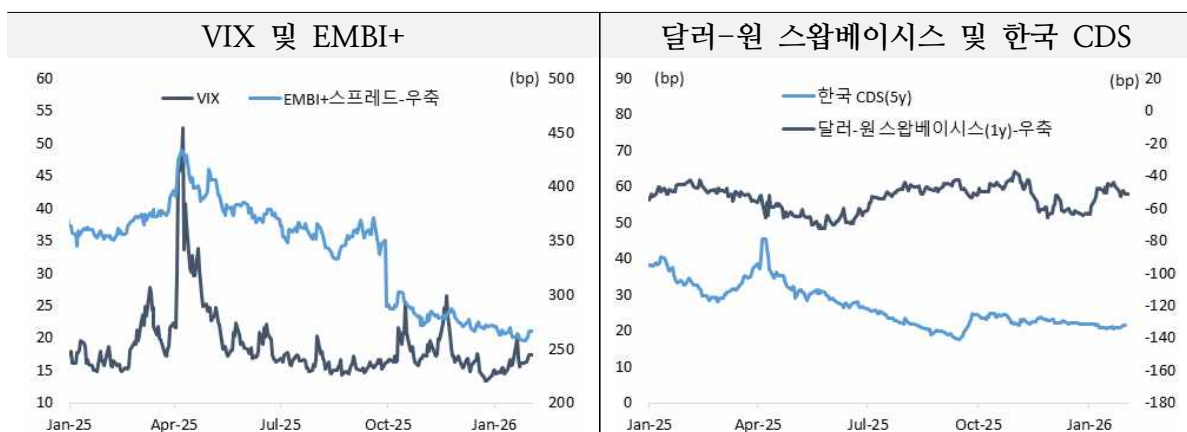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